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57층의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 수영장 끝과 건물 벽이 맞닿아 있는 착시현상을 주는 인피니티 풀은 무려 축구장 4배의 방대한 크기로, 5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방값에도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가 인기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사진제공 | 네이버 블로그 Exclusively for THAI & JAPAN

작년 매출 6조...복합리조트 2곳이 아시아 경제부국 효자로



카지노 3.0...
아시아는 지금 복합리조트 전쟁

- 1 도쿄에서 영종도 제주까지
- 2 복합리조트 강국으로 변신한 싱가포르
- 3 라스베이거스 추월 세계 1위 마카오
- 4 국내 유일 오픈 카지노 강원랜드의 현실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리조트 월드 센토사
2곳 작년 매출 6조...라스베이거스와 맞먹어
국내의 자본 투자규모 11조...영종도는 4조
10년간 철저한 타당성 조사...부작용 최소화

깔끔한 거리, 동남아 금융 중심지, 깎간깐 사회통제시스템. 싱가포르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다.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6만2400달러의 부국이지만 거리환경을 위해 겹 판매도 통제할 정도로 엄격한 '아시아의 도덕국가'. 이런 싱가포르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2010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도덕국가' 싱가포르가 강한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카지노에 문호를 개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포르에는 현재 2개의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가 있다. 11만9000㎡의 바다 매립지에 객실 2516개의 57층 호텔 3동을 세운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와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있는 49㎡ 규모의 '리조트 월드 센토사'다. '왜 싱가포르

에 카지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우선 두 복합리조트의 매출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개장 첫째 43억 달러(약 4조4032억 원)를 기록했고, 2007년부터 계속 줄던 관광객은 20.2%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당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싱가포르는 국내 총생산(GDP)이 14.%, 세수가 7.7% 늘었다. 매출은 계속 늘어 2013년 6조원으로 라스베이거스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 PWC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가 2014년 65억 달러, 2015년 71억 달러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 빠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

싱가포르 성공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과감한 투자다. 최근 뜨거운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된 투자 규모는 사업건별로 1조 9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두 복합리조트 조성에 국내외 자본이 무려 11조원이나 들어갔다. 해외자본 유치도 적극적이어서 2006년 미국 샌즈 그룹에 사업권을 허가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라이선스 기간이나 세율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줬다. 권영기 한국카지노업관협회 사무국장은 "규모의 싸움인 복합리조트는 과감한 투자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며 "싱가포르는 발 빠르게 복합리조트에 투자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타당성 조사서 부작용 대책까지...90년대 말부터 차근차근 준비

싱가포르의 성공에서 타산지적으로 삼을 점은 또 있다. 복합리조트산업 전문가인 성철경 강원랜드 경영기획팀장은 "싱가포르의 성공은 단순히 2~3년 준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며 "10여년전부터 타당성 조사와 준비, 부작용 대책을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성 팀장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설립된 1998년에 이미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다. 카지노를 합법화한 2004년 이후에는 투자유치와 부작용 방지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다. 성 팀장은 "무역과 금융의 아시아 허브이던 싱가포르는 경쟁 국가의 부상으로 서서히 한계를 맞차, 미래의 캐시카우(cash cow)로 복합리조트를 주목했다"며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시장 기반의 타당성 조사와 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2004년 카지노 허용 당시 75%에 달했던 반대 여론을 고려해 부작용 방지대책에 공을 들였다. 내국인에 대한 100SGD(약 8만1000원)의 높은 입장세와 카지노 내 대출 금지 등의 내국인 보호 안전장치, 단지 내 카지노 면적 제한, 필수시설(MICE, 엔터테인먼트, 관광명소, 쇼핑) 명시 등이 이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kobaukid

▶
엄청난 규모의 마리나베이 샌즈 카지노 전쟁. 바카라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 테이블이 펼쳐져 있다. 사진제공 | 네이버 블로그 Exclusively for THAI & JAPAN



강원랜드 부사장 선임 백지화 이사회, 재공모 절차 밟기로...경영 공백 불가피

논란이 많았던 강원랜드의 부사장 선임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강원랜드는 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부사장 선임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4월부터 부사장 선임을 위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재공모 절차를 통해 부사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장이 공식인 강원랜드는 그동안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성원 부사장이 사임을 해 신임 부사장 공모를 진행해 왔다. 서류심사, 면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역량평가 등 공모 과정에서 김시성 경영지원본부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 본부장에 대해 강원랜드 노조와 지역사회가 "낙하산 인사의 부사장 선임 반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노조는 김 본부장의 부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조합원 2000명의 서명을 첨부해 산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다음 주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임이사 재공모에 대한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간 지원접수를 받아 공모 과정을 다시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산자부의 역량평가는 한 달 정도가 걸려 당초 예정했던 7월 부사장 취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사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부사장 선임마저 지연되면 강원랜드는 당분간 워터파크 착공 등 각종 현인들의 경영적 판단이 미루어지는 등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재범 전문가

해외여행, 유럽·중국 뜨고 일본·동남아 지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해외여행 지역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동남아와 일본의 인기가 추축한 반면 유럽과 중국을 찾는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하나투어가 5월 해외여행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5월과 비교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 여행객은 올해 전체 해외여행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전년 대비 40.8%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도 19.2% 증가했다.

유럽은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기존 인기 방문국 외에 최근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이 새롭게 여름 휴가지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해외 여행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는 올해 전년 대비 19.1% 줄었다. 일본은 감소 비율이 더 커 28.4%에 달했다. 동남아 지역은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지역의 수요는 늘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과 필리핀을 찾는 여행객이 크게 줄었다. 군부 쿠데타 발발, 현지 교민의 잇따른 피살 등 태국과 필리핀의 정세와 치안 불안이 여행객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사 문제로 경직된 양국 관계와 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여행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범 전문가

죽기 전에 가 봐야 할 곳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인기 여행 블로그가 꼽은 최고 복합리조트

카지노 뿐 아니라 대형극장·쇼핑몰까지
57층엔 축구장 4배 크기 '인피니티 풀'

"Last call !!, No more Bet !!"

황금색 조끼의 딜러가 양손을 펼쳤다가 모은 뒤 카드 셔플머신으로 향한다. 두 장씩의 카드가 뱅커와 플레이어에 각각 놓인다. 최대 6장의 카드로 승부를 보는 게임, 바카라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이 가득찬 이 곳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가 아니다. 한국의 쌍용이 지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크, 호사객들이 죽기 전 꼭 가 봐야 할 곳으로 꼽는 57층 인피니티풀과 거대 카지노를 자랑하는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서 오차드 로드로 가다보면 우뚝 솟은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가 눈에 들어온다. 원래 먼저 오픈한 카지노는 센토사 섬 리조트인데, 도심 접근성이 좋아 싱가포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를 더 선호한다. 주변엔 5성급의 고급호텔들이 즐비하다. 1박에 30만~40만원이 넘는데,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는 더 비싸 시내뷰 객실도 1박 45만~50만 원대다.

마리나베이 샌즈나 센토사 섬 카지노 모두 내국인은 100SGD(약 8만1000원)의 입

장료를 낸다. 외국인은 여권검사만 한다. 고액 중 가장 많은 사람은 싱가포르 내국인이지만 요우커(중국인 해외여행객)의 머니 파워는 여기서도 막강해 마리나베이 샌즈 카지노의 VIP 전용룸 이름이 아예 '상하이방'이다. 한국인 고객도 있지만 인도계 손님도 많은 것도 특징이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특별한 복장제한이 없지만 센토사 섬은 슬리퍼를 신으면 출입금지다. 두 군데 모두 기본 베타이 100SGD 선으로 여행객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카지노 게임은 한국의 내국인 카지노처럼 바카라에 쏠려있지 않고 다이사이, 블랙잭, 포커, 룰렛 등 다양한 게임 테이블이 적절히 비율로 있다.

센토사 섬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 가족휴양지로도 인기가 높다. 반면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는 대형극장과 에르메스, 샤넬, 구찌같은 명품관이 빼곡히 있는 쇼핑몰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 55층까지 올라가 다시 저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57층으로 가면 거대한 배 모양의 수영장이 싱가포르 시내 전경을 배경으로 눈에 들어온다. 바로 축구장 4배 크기를 자랑하는 유명한 '인피니티 풀'이다.

'인피니티 풀' 옆의 클럽 '루메타'도 밤에 꼭 가 봐야 할 명소로 꼽힌다. 해외 인기 DJ의 파티가 자주 열리는 이곳은 드레스 코드가 엄격해 반바지와 샌들 복장은 입장 불가다.

불방망이=네이버 여행 블로그 Exclusively for THAI & JAPAN 운영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